

WISET 취업탐색 멘토링 결과보고서

1. 참여자 정보

성 명	고나연	참여 멘토링 팀	이웃집 나йки팀
소 속	한국공학대학교	전 공	소프트웨어전공
활동기간	2023 년 5 월 ~ 2023 년 10 월		

2. 멘토링 활동 소감

글로벌 멘토링만 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취업탐색 멘토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비록 글로벌 멘토링보다는 명확한 느낌이 다소 부족했지만, 취업 후에 다시 생각나고 '그때 그 이야기였구나'라고 곱씹을 수 있을만큼 취업 전에 와닿은 내용보다는 취업 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모두가 수능이 마지막인줄 알았으나 지나서 보면 첫 관문이었다는 것을, 온세상인줄 알았던 바다가 굽이보니 결국 웅덩이 속 물이었던 것처럼, 현재 저와 멘티들 모두 취업의 세상이 끝이라고 느껴지는 좁은 시야 속에서 이 멘토링을 통해 그것도 한낱 고 3 때의 수능을 보는 시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멘토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시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IT 에 더 매력을 느낀 점이, 온전히 본인들의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멘토님들의 열정덕분에 저 또한 제 분야 자체에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맞는 직장, 분야를 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 소감, 참여 후기, 멘토링으로 인해 변화된 점 등을 작성해 주세요.

멘토링 카페나 온라인으로 공유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 향후 멘토링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이나 의견도 함께 남겨 주세요.

3. 참여 활동 내역

주 제	킥오프미팅		
일 시	2023. 04. 29. (토) 13 시 반~16 시	장 소	서울 강남역
후 기	<p>4 월 23 일 멘토-멘티가 매칭된지 일주일이지났고, 드디어 멘토님들과 멘티들을 접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멘토님 한 분과, 멘티 한 분이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redacted] 멘토님께서 본인의 커리어나 인생 일대기를 이야기 해주셔서 그 짧은 시간에도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p> <p>서로 간단한 소개나 고민 등을 나누고 비슷한 전공인만큼 유대감이 더 깊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p> <p>앞으로가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p> <p>저희 팀은 [redacted] [redacted]; 그리고 저, 멘토님은 [redacted] 멘토님으로 매칭이 되었습니다.</p>		

사 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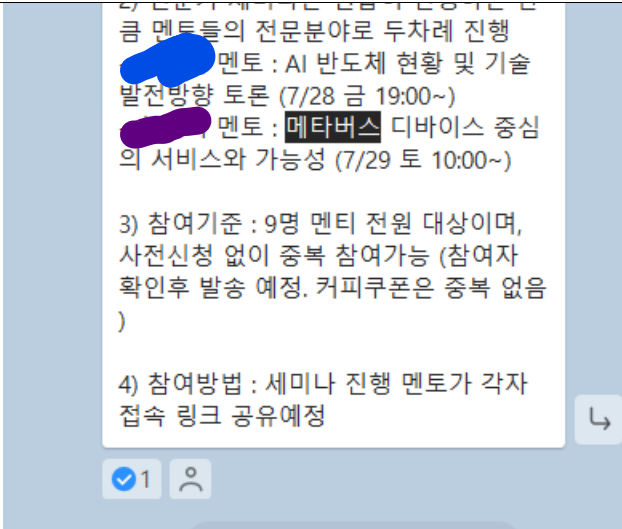
주 제	소모임 멘토링		
일 시	2023. 05. 19	장 소	온라인
후 기	<p>이번 멘토링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여행 time 이었습니다.</p> <p>나의 모습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멘티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p> <p>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저의 직업적인 목표나 꿈은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때 멘토님께서 저에게 직업적인 꿈과 본인의 추상적인 꿈을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했던 것이 참신하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고 칭찬해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p>		
사 진	그때	당시	활동 사진이 없어서 다른 분 ppt 로 대체합니다 죄송합니다

--	--

주 제	멘토링('멘토님의 직무와 필요 역량',북멘토링)		
일 시	2023. 06. 30	장 소	온라인
후 기	<p>이번 시간은 kick-off meeting 때 [redacted] 멘토님께서 잠깐 prologue 식으로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취업을 하신 그때부터 그동안의 커리어와 스토리들을, 그리고 느끼셨던 내용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구직자이자 불안한 위치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대단해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해주시고 담담하게 격려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물론 약간은 투박한 말씀이셨지만, 오히려 더 진심이 전달되어 저는 그 말씀에 감동과 함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p> <p>또한, 함께 소개해주신 북 멘토링은, 많은 정보의 시대에서 보석같은 도서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p> <p>매 멘토링마다 부담스럽지 않게 도서를 추천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p>		

사 진	
--------	--

주 제	주제별 멘토링		
일 시	2023. 07. 29. (토요일) 10 시	장 소	온라인
후 기	<p>이번 시간의 기획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메타버스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 쪽으로 추후에 진로를 잡아 길을 걸을 생각이 있지만, 현재 외국은 물론 한국에서 xr 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어 막막하던 참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hp 글로벌 멘토링 때 멘토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기 멘토분께도 말씀드려 여러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간을 마련해주시다니...</p> <p>바쁘신 와중에도 발표를 준비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p> <p>메타버스의 현황 및 사례를 말씀해주시고, 시장 현황 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또 마음에 들었던 게, 개발자로서의 생각도 있지만, 저는 ceo 로서의 뜻이 더 깊기에 이런 시간이 정말 기억에 남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p>		

사 진	
-----	---

주 제	온라인 멘토링 (NIPA), 마지막 멘토링(심층 북멘토링, 자기소개서 작성)		
일 시	2023. 09. 01 (금요일), 2023.10.28(토요일)	장 소	온라인,오프라인
후 기	<p>1. 직접 방문하기로 한 7 월의 NIPA 를 온라인으로밖에 탐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멘토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는지 사업현황과 기술전망에 대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SI 쪽은 오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긴 했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혹했던 순간들이 한두번이 아닐 정도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2.마지막 멘토링 시간은 직접 만나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북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너무 아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서로 아쉬움과 감사함을 길게 표현하였고, 아직도 저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앞으로의 저의 미래에 고마운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다시 뵈었을 땐 많이 성장한 제가 되길 바라며 이 보고서를 마칩니다.</p>		